

늘어나는 반달곰 공존 방법 찾는다

22개 지자체 공존협의체 복원 넘어 '존속' 체계 구축 백두대간 통한 이동로 확보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의 패러다임이 인간과의 공존을 위해 '개체' 중심에서 '서식지 관리 체계' 중심으로 바뀐다. 건강한 서식지 제공, 공존시스템 구축 등이 골자다.

환경부는 최근 구례군 지리산 생태탐방원에서 '반달가슴곰 공존협의체' 구성 및 공존선언식을 열었다. 공존협의체에는 전남도, 경상남도, 충북도를 비롯해 구례·곡성·화순군 등 22개 광역·기초자치단체 등이 참여했다.

이날 선언식은 지리산에 방사한 반달가슴곰의 야생 개체 수가 증가하고 서식지역이 확대할 것으로 예상해 곰 복원사업 정책을 '지역사회와의 공존'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리였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I급인 반달가슴곰은 2004년 첫 방사 이후 올해 총 56마리로 늘어나면서 최소 '존속 개체군'인 50마리를 넘어섰다. 존속개체군은 개체수의 변화, 유전적 변화, 자연재해 등에도 불구하고 100년 또는 1000년 동안 생존율 99%를 지니는 개체군을 뜻한다.

반달가슴곰의 개체 수는 출산·수명(약 20~25년) 등을 고려하면 2027년에는 약 100마리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리산에서 수용 가능한 개체 수(78마리)를 초과하면 반달가슴곰들은 다른 서식지를 찾아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개체 수가 늘어나면서 2014년부터는 광양이나 곡성, 김천 등 지리산 권역 외 밖으로 반달가슴곰이 이동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반달가슴곰 1마리가 백두대간을 따라 김천 수도산까지 100여km를 이동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장거리 이동 또한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우선 '반달가슴곰 공존협의체'를 구성해 올해부터 반달가슴곰과의 공존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협의체에는 반달가슴곰이 1회 이상 활동한 지역이나 활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 전남, 경남 등 5개 도, 17개 시·군을 비롯해 시민단체, 전문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참여한다. 17개 시·군 지역에는 구례·곡성·화순·광양·순천 지역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반달가슴곰을 포함한 멸종위기종의 복원정책 평가와 공존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별도 논의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특히 반달가슴곰의 활동과



반달가슴곰

분산을 지원하고자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리산, 덕유산, 속리산 등 중남부 권역으로 이어지는 국가 생태축의 훼손·단절지역을 조사하고 2022년까지 훼손지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식 환경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고속도로 폐도 복원, 생태통로 조성 등 생태계 연결 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반달가슴곰의 출산이나 불철 이동 시기 등 특정 기간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를 통해 탐방로를 일시 통제하거나 예약탐방제를 시행한다. 반달가슴곰은 생태·행동 특성상 사람을 회피하는 편이지만, 출산하거나 불철에 이동할 때는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탐방로 등에 반달가슴곰 서식지 안내 현수막과 진입 금지 안내방송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고 대피소와 탐방로마다 곰 활동지역과 대피요령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인근 지역주민에게는 곰 퇴치 스프레이 등을 제공하는 등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한반도 생태계의 건강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틀이 마련돼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지리산 반야봉(해발고도 1732m) 일대에 멸종위기종인 구상나무가 기후변화로 인해 집단 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제공)

지리산 구상나무 집단 고사 덥고 메마른 날씨 생장 막아

지리산 반야봉(해발고도 1732m) 일대에 멸종위기종인 구상나무가 기후변화로 인해 집단 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국립공원 반야봉 일대에서 집단으로 고사한 구상나무 94그루를 분석한 결과 50여 년에 걸친 생육 스트레스가 장기간 쌓인 것이 원인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구상나무는 우리나라 고유종 상록 침엽수로,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멸종위기종'이다.

현재 지리산 반야봉 일대(1km)에 있는 구상나무 1만500여 그루 가운데 45%인 670여 그루가 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단 연구진은 고사한 94그루 나이를 분석해 과거 생육 정보를 확인했다. 그 결과 1960년부터 계속해서 생육이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89.4%인 84그루는 2000년 이후, 11.7%인 11그루

는 2012년 이후 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2월 기온 상승과 3월 강수량 부족이 가뭄으로 이어져 구상나무 생장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반야봉 일대 2월 평균 기온은 2012년 영하 9.1도에서 2017년 영하 5.3도로 연평균 0.76도씩 상승했다.

연구진은 이런 기온 상승이 적설량 감소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불철에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공급되는 수분량이 부족해 구상나무 생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일대 3월 강수량은 2012년 137.5mm에서 2017년 22.5mm로 연평균 23mm 감소했다.

연구진은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봄철 기온 상승 때문에 수분 부족이 생육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한·중·일 기후행동 함께 한다

내일까지 광주서 '기후환경교육 워크숍'

한국·중국·일본의 기후환경교육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한·중·일 동아시아 기후환경교육 워크숍'이 광주에서 진행된다.

5일 개막한 이번 워크숍은 17일까지 '푸른 동아시아 만들기'를 주제로 광주시 서구 유촌동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열린다.

행사는 기후환경교육의 동아시아 연대를 통해 각국의 기후교육현황을 공유하고 동아시아 공동의 기후보호와 기후행동의 실천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 임낙평)와 동아시아기후네트워킹(한중일 NGO로 구성)가 행사를 주관한다.

15일에는 한·중·일 기후교육교재 현황과 교육사례 공유를 통한 '교재 개발간담회'가 진행됐다. 16일에는 한·중·일의 기후환경교육 정책, 프로그램 등을 공유·진단하는 워크숍

이 열릴 예정이다.

동진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중국교사의 특별수업과 국내외 다양한 기후교육 교재 및 교구들을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후변화교육 콘텐츠 체험마당'도 운영된다.

센터 교육사업팀 김준희 팀장은 "이번 워크숍은 한·중·일 기후교육을 주제로 국내에서 갖는 첫 프로그램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절박함을 인식하고, 기후교육을 통한 저탄소 실천문화 저변확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는 자리"라며 "오는 7월 중국 시안에서 열리는 제7회 동아시아 기후포럼에서 후속 논의를 통해 한·중·일 협력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워크숍에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재)국제기후환경센터(062-601-1351)로 문의하면 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친환경 운전하면 10만원 상당 탄소포인트

환경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선착순 모집

친환경 운전으로 최대 10만 원 상당의 탄소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2차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최근 서울 세라촌 서울남산호원에서 한국환경공단, SK텔레콤, SK네트웍스와 함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추진됐다.

운전자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하면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경제적 혜택(탄소포인트)을 준다.

이 혜택은 현금 또는 교통카드, 상품권, 탄소캐시백, 종량제 쓰레기봉투, 공공시설 이용 바우처, 기념품 등 형태로 전환된다.

올해 2차 시범사업은 1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12월까지 진행하며,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홈페이지(car.ppoint.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는 운행정보 수집 방식에 따라 운행기록장치(전장장치(OBD) 방식, 사진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OBD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단말기(무상 제공)를 차량에 장착해 주행거리와 친환경 운전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사진은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감축 실적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지난해와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에는 1441명의 참여자가 총 주행거리 164만km를 줄여 300t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한국환경공단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내년부터 시행하면 2020년까지 약 260만t의 이산화탄소(CO2)를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경매 교육(실전 개강)

실전경매 교육 (5월 중순 개강)

- ① 기초실전반 (경매기초 + 기본실전)
- ② 실전투자반 (기초 + 실전 - 매매까지)
- ③ 무료반운영 → (오전,오후)

기초이론부터 ~ 실전투자 리모델링,매매까지 (원스톱강의)

직원구함

- 1) 경매 배우면서 근무하실분
 - 2) 경매 컨설팅하면서 수익내실분
- 평생회원 → 책상,컴퓨터,교육(무료제공)

062- 382-5500 010-6670-9800

경매 추천물건(토지)

광산C 1분 하남 산단 맞은 편 위치

1,373평 하남공단 8번도로 (코너)

감정가 35억

신축 원룸 매매

- ①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16개) 월세 500만 ▶매가 8억3천
- ② 산정공원바로앞(코너)1층상가(2개)원룸(12개) 4층(최고급주택)월세 550만 ▶매가 9억5천만
- ③ 월곡동시장 2분 (4층 원룸상가) (원룸12개,투룸2개)총 14개 (월수익 550만) ▶매가 8억5천만

010-6670-9800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 1) 서구 쌍촌동 (3층상가주택) 토 90평 건 107평 ▶감정가 6억 → 최저가 4억2천
- 2) 남구 진월동 (5층 상가빌딩) 토 128평 건 406평 ▶감정가 18억 → 최저가 16억
- 3) 화순 도곡면 (무인텔) 토 3,289평 건 3,278평 각실 32개 (월수익 5,000만 예상) ▶감정가 37억 → 최저가13억4천
- 4) 서구 금호동 (7층중 7층상가) 토 54평 건 89평 대단위아파트 위치 ▶감정가 6억 → 최저가 3억3천

- 5) 남구 백운동 (빌라) 토 66평 건 145평 ▶감정가 3억6천 → 최저가 3억6천
- 6) 북구 문흥동 (3층원룸) 토 57평 건 104평 ▶감정가 3억6천 → 최저가2억5천
- 7) 상무지구 (12층 중 8층상가) 건물 127평 (상무지구 중심가도로) ▶감정가 8억7천 → 최저가 8억7천
- 8)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감정가 3억 → 최저가 1억6,800만
- 9) 북구 신안동 (6층 숙박시설) ▶감정가 8억6천 → 최저가 4억8천
- 10) 북구용봉동 (12층중 7층상가) ▶감정가 6억7천 → 최저가 2억9천9백
- 11) 남구 주월동 (마트) 토108평 건183평 ▶감정가 14억6천 → 최저가 10억

A.P.T, 주택 토지 공장, 기타

- ① 서구 문흥동 우은로아파트 02평 ▶감정가 1억2천 → 최저가 1억2천
- ② 서구 내빈동 4층주공아파트02평 ▶감정가 1억2천 → 최저가 1억2천
- ③ 남구 주월동 (주택) 토 40평 건물 40평 ▶감정가 4억 → 최저가 3억
- ④ 광산구 서동 (주택) 토50평 건물 300평 ▶감정가 1억7천5백 → 최저가 1억7천5백
- ⑤ 광산구 도산동 (주택) 토80평 건물 200평 ▶감정가 7억 → 최저가 7천5백
- ⑥ 광산구 하남동 (대지)02평 ▶감정가 8억5천 → 최저가 8억5천
- ⑦ 서구 용인동 (상가) 300평 ▶감정가 6억5천 → 최저 3억9천
- ⑧ 북구 용인동 (상가) 200평 ▶감정가 4억 → 최저 4억
- ⑨ 동구 용인동 (상가) 800평 ▶감정가 1억7천5백 → 최저 1억7천5백
- ⑩ 동구 학동 (상가) 100평 ▶감정가 1억5천5백 → 최저가 1억
- ⑪ 광산구 월성동 (공장) 토 2,220평 건물 1,260평 ▶감정가 66억 → 최저가 30억
- ⑫ 전남 보성읍 배상리 (공장) ▶감정가 69억2천 → 최저가 2억7천5백
- ⑬ 광산구 월성동 (공장) 토260평건180평 ▶감정가 34억 → 최저가 34억
- ⑭ 전남 고흥군 동강면 (공장) ▶감정가 4억 → 최저가 4억
- ⑮ 전남 화순군 함평리 (농동철교) ▶감정가 7억8천 → 최저가 5억3천

010-7384-7800 010-6670-9800

상가매매

월상동 3층 건물

월수익 900만

매가 : 22억 (용 1억 보 1억4천)

- ① 상무지구 6층 상가 월 수익 50만 ▶매가 8천만
- ② 남구 진월동(4층 상가건물)▶매가 5억
- ③ 경기도 평택시 신성도 (오피스텔 개발부지) 토지 53평 건물 222평(건축허가완료) 개발시 순수익 10억 ▶매가 9억
- ④ 평택 전원주택 분양 송탄역, 진위역 5분 (교육신도시 7분!!!) 1필지 약 200평 ▶매가 2억4천만

010-6670-9800